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# 부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김준섭  
전화 051-606-4164

보도자료  
2024. 9. 11.(수)

주책임자 : 여성·아동범죄조사부장  
전화번호 : 051-606-4313

## 제 목

##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·경 수사실무협의회 개최

- 부산지방검찰청(검사장 정영학)은 오늘(9. 11.) 부산경찰청과 함께 '딥페이크(Deep fake) 기술'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·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·경 수사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.
- 수사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(SNS)를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허위영상물 제작·배포 등 디지털성범죄 발생 상황의 심각성을 공유하고,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상시 업무 협력 체계(핫라인)를 구축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.
- 또한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,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,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, 심리치료,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충실한 피해자 보호·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사 전 단계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.
- 앞으로도 부산지방검찰청은 부산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'중대범죄'인 허위영상물 제작·배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하여 신속·엄정 대응함으로써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## I | 개최 배경

-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영상물 제작·배포 등 디지털성범죄가 증가하여 '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'는 사회적 불안이 확산됨에 따라 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·경 협력 체계 구축 필요

※ 전국 기준, '24. 1.~7. 「허위영상물 편집 및 배포 등」 사건의 접수인원이 전년동기 대비 157.1% 증가



## 회의 개요 및 논의 사항

### 1 회의 개요

- (일시·장소) 2024. 9. 11. 11:00~12:00, 부산지검 6층 소회의실
- (참석자) ▲부산지방검찰청 여성·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,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 3명, ▲부산경찰청 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 수사팀장 등 5명

### 2 주요 논의 사항

#### 가.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발생 현황의 심각성 공유

- 최근 지인 또는 연예인의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제작·배포하는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,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확산되는 등 범죄 발생 현황의 심각성 공유

#### 나. 부산지검-부산시경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

-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검·경이 협력하여 범인 특정 및 검거, 증거 확보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검의 '디지털성범죄 전담 검사'와 부산시경의 '허위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' 간 핫라인 구축
- 사건 송치 전이라도 「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」 제7조에 규정된 '중요사건 협력절차'를 활용하여 적극적 의견 교환

사건 발생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압수영장 등 강제수사 관련 협조</li> <li>▶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,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 관련 협조</li> </ul>
수사 단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중요사건 협력절차를 활용하여 ① 송치 전 수사할 사항, ② 증거수집 대상, ③ 법령의 적용, ④ 범죄수의 환수조치 등에 대한 의견 교환</li> <li>▶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 등 피해자 지원 관련 협조</li> </ul>

## 다.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

- 관내 허위영상물 관련 범죄 발생 현황, 중요 사건 등 수사 상황 공유하고, 최신 디지털성범죄 판례 경향 등 반영한 유형별 수사 착안 사항 논의

### ▣ (참고) 허위영상물 편집·배포 등 관련 주요 범죄 유형

▲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의 사진을 제공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 의뢰한 후 이를 전달 받아 텔레그램 등 개인 SNS에 게시, ▲ AI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직접 피해자 또는 연예인 사진과 나체사진을 합성하는 등 허위영상물 제작하여 공유, ▲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게시할 수 있도록 공간 제공 등

- 영리목적 계획적·조직적 범행, 인적 신뢰 관계 이용 등 비난 동기가 뚜렷한 범행 등 죄질이 중한 사건을 중점 수사하되,
  - 영리 목적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,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·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영상물 제작 사범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기조 공유

## 라.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보호·지원 방안 논의

- 허위영상물의 유포 및 유포 우려가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 지원 의뢰
- 피해자에게 극심한 모욕감을 초래하는 등 중대한 피해 상황 고려하여 심리치료 등 경제적 지원, 진술조력인 선정, 피해자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 지원 등 입체적·다각적 피해자 보호·지원 실시

## III | 향후 계획

- 부산지검은 수사실무협의회를 통해 구축된 부산시경과의 핫라인 등 상시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사건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적극 협력하여 관련 범죄에 신속·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임
- 또한 피해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으로 신속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「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」 등 유관기관과 계속 협력하여 불법영상물 삭제·차단 등 실효적 피해자 보호·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음 ☑